

**벤처 관련 정책**

● **중기청, 중소기업 규제개혁 본격 추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추진할 전 부처 규제개혁과제 1,002개('09. 1. 16 현재)중 중소기업 창업·투자활성화 및 영업활동 개선 등을 위한 과제가 637개(약 64%)로 중소기업 경기활성화의 의지가 담겨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무총리가 주재한 '20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보다는 기업입장을 위한 '중소기업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년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규제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실험실 공장 설립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창업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절차를 단축(소요기간 단축 : 23 → 4일)하는 한편,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인설립 On-line 시스템 등을 구축해 World Bank 창업환경 순위 세계 10위권 진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 납입자본금 및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납입자본금 : 70 → 50억 원, 전문인력 : 3 → 2명)하고 △창업투자조합 출자만 가능한 우체국 보험적립금(약 20조 원)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이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출자하는 경우, 자회사로 간주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완화(15% 출자한도 폐지, 승인을 신고로 같음)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었던 사업전환지원 대상을 건축업 등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조합이 추천하는 영세중소기업과 수의계약시 계약한도를 상향조정(2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하)하는 한편, △신용담보제도는 업체의 수출입실적 또는 납세실적에 환율상승폭을 반영하여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사업장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해 △준산업단지·공장입지 유도지구내 공장·물류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40 → 60%)하며, 산업단지 내 단지별 소각시설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매립시설은 인근단지와 공동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 **중기청,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확대**

중소기업청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122개 인증분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제품시험, 컨설팅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80%, 최대(1개 인증당)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수출실적 500만 달러 이하에서 1,0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의 지원비율을 10% 상향 조정했다.

또 물가상승률, 환율변화 등 인증별 지원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선급금으로 지급, 인증 획득에 필요한 초기비용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인증획득에 실패하더라도 소요비용을 선급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개선해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 **중진공, 중기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단기간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지난해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제도를 통합하고 집행장구를 중진공으로 일원화하기로 한 '중소기업지원체제 효율화 방안('08. 4)'에 따라 금년부터 중진공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을 총괄함에 따라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 및 서류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업구분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서를 1종으로 통합해 중진공 지역본(지)부 담당직원이 해당기업에 가장 적합한 자금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소정양식의 신청서 1부만 작성해 제출하고, 각종 제출서류는 중진공 직접발급 및 현장확인으로 대체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 **특허청,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교육 실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특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IP) 실무인력양성사업」을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중소기업은 멀리 위치한 교육장소,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부족, 대체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등으로 특허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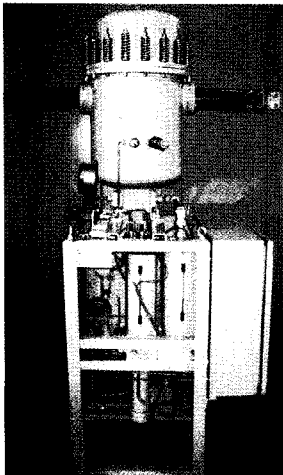
이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 입맛에 맞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대체인력이 적어 관련 직원이 교육받기 곤란한 점을 감안, 기업에 강사를 직접 파견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끝난 야간에도 특허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업의 교육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비용은 무료이며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월 30일까지 [www.kipa.org](http://www.kipa.org) 또는 [www.iphuman.or.kr](http://www.iphuman.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e-mail([kyoenm@kipa.org](mailto:kyoenm@kipa.org)) 또는 Fax(☎02-3459-2859)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

● **전기연, 고전압 대전류 정밀시험용 핵심기기 국산화 성공**



고전압·대전류의 전력기기를 정밀시험하는데 사용되는 핵심기기가 정부출연기관 연구진에 의해 국산화돼 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 원장 유태환은 최근 전기기기평가본부 김선구 박사팀(대전력평가2실)이 유압으로 동작되는 고전압·대전류 투입스위치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팀이 이번에 개발한 유압식

투입스위치(18kV 150kApeak 60kArms)는 주로 변압기, 개폐기, 차단기, 배전반 등 전력기기의 고전압·대전류의 정밀시험에 사용되는 핵심기이다. 주로 대전력 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 기기는 일반적인 수요가 적고 스위치로서 만족해야 하는 특성과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매우 고가(60,000 유로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용 운송부품까지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김 박사팀이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외화절약은 물론 절반가 이상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전력기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기계연,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기능성 현미경 탐침 기술 개발**

미세 반도체 소자 및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현미경 탐침(Microscopy tip)에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이상천)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한창수 박사(연구책임자)와 김준동 박사(실무책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인 나노메카트로닉스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전도성 나노와이어를 이용하여 나노 구조물에 대한 표면 및 전자기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기존 현미경 탐침 제작에 필요한 고비용의 진공조건과 여러 단계의 미세 가공 및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저비용으로 미세 구조물에 대한 전기·자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소재를 적용한 기능성 나노 소재 현미경 탐침 기술은 머리카락의 1/1000~1/10000 크기의 나노와이어 (Nano-wire)를 현미경 탐침으로 이용한 것으로, 요소 기술인 전기 (Electric field)를 이용하여 나노와이어를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산업에서 제작가능하면서도, 공정의 단축을 통해 제작 비용을 기존에 비해 1/10정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 **창업자들의 버팀목 '창업진흥원' 출범**

창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창업지원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지난 13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창업관에서 개

원식을 갖고 출범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시책 개발에서부터 창업 교육, 예비 창업자의 기술창업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사장으로는 김영식 이사장이 취임했으며, 2부 1실 3팀 체제로 운영된다. 총 임직원은 22명. 이날 개원식에는 중소기업청 차장, 전국신용보증재단 연합회장, 창업경영컨설팅협회장 등 중소기업 유관 기관 관계자와 (사)창업진흥원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현판식 후에는 창업진흥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원 기념 포럼과 2009년도 창업지원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 식품연, 콩 껍질을 이용한 저칼로리 식품소재개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 이무하) 신소재연구단의 박동준 박사팀은 최근 대두(콩) 가공부산물인 콩껍질(대두피 ; Soybean hull)을 분쇄 복합화 공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즐겨먹는 감자튀김, 도넛, 라

면 등 식품의 지방함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저칼로리 식품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IFT에서 발행하는 Food Technology의 News(2008)란에 도넛에 의한 지방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재가공기술로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관련 분야의 권위지인 SCI 학술지 'Journal of Food Science(2008)'와 'LWT-Food Science & Technology(2008)'에 게재되어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그 동안 대두껍질(Soybean hulls)은 섬유질과 단백질의 함량이 많은 저렴한 대두가공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물 사료 또는 이온교환 수지 등에 한정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대두피를 부가가치가 높은 저칼로리 식품소재로 개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 지역 자치단체

### ● 부산시, 1/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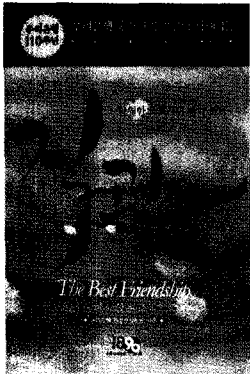
부산시가 지역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1/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받는다. 올해 부산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1,980억 원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900억 원, 시장정비자금이 80억 원이다. 이 중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분기 배정액 700억 원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부산경제진흥원(창업, 경쟁력강화)에서 접수하며, 시장정비자금 80억 원은 구·군(시장정비자금)을 통해 연중 접수를 받는다. 중기 자금난 완화를 통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지원은 △지원규모 확대('08년 대비 2,280억 원 증액) △상반기 전체 지원규모의 63% 조기 지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증액(50억 원 → 80억 원) 등 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대폭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부산시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중소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산업, 향만물류산업 영위업체 △지원한도는 시설자금 13억 원(시설비)이내(단, 자가 공장마련 자금은 7억 원 이내), 시장정비 80억 원 이내, 임시시장 설치 및 아파트형 공장임주자금 5억 원 이내의 필요 소요자금 75~80%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4.9%(변동금

리)로 자금신청은 매분기 1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 ● 대구시,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373억 지원

대구시는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규모를 373억 원으로 확정하고, 2월 1일부터 업체들로부터 신청서를 조기 접수받는다. 금년도 융자대상으로는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 및 지식기반산업과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금리는 정부융자금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일반기업체는 연 4.54%(변동금리), 중소기업대상업체 및 스타기업, 쉬메릭 지정업체와 벤처기업 등은 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술혁신형 및 이노비즈와 게임 등 지식기반산업체는 우선 추천한다. 융자한도는 일반시설 및 건축자금은 10억 원(일반시설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건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까지, 시설자금이 수반되는 운전자금은 3억 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까지 융자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1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지원비율은 시설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소요자금의 100%,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범위 내에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4 이내로 적용한다.

◎ **우리은행,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집 '직관' 발간**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2001년 금융권 최초로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년간 530여 개 중소기업의 컨설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를 모아 중소기업 컨설팅 사례집 『직관 - 탁월한 조력자의 감각코드』을 발간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컨설팅 사례집

은 우리은행 기업컨설팅팀이 경험한 컨설팅 내용을 중소기업과 함께 공유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례를 선정해 기존 해외 대기업 사례 일색인 컨설팅 도서와 차별화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한 모범 사례를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가업승계, 인사·조직, 구매·재고관리, 마케팅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12가지 사례로 소개했다.

◎ **기업은행, 기술창업기업대출 판매**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우수 창업 중소기업을 위해 총 5천 억 원 규모의 '기술창업기업대출'을 판매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창업한지 5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운전자금 3억 원·시설자금 5억 원 이내로 운전·시설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대 8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8년이다. 기업은행은 자금유도를 창업초기 사업장 구입자금 등과 같은 시설자금과 기술개발 자금, 신기술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자금까지도 확대했다. 또 이 대출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영업점장이 전결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금리를 0.5%p까지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 **KB국민은행, 현장중심의 금융으로 상담 체계 구축**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매 분기마다 은행장 및 부행장들이 거래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9월부터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반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번 현장중심의 상담체계 구축으로 기업에 대한 적기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여신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진의 현장중심 경영은 영업현장에서의 거래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美 아에리아 게임즈, 한국 파트너 찾아 나섰다!**

북미 시장에서 12종의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며 5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 온라인 게임사 Aeria Games(아에리아 게임즈)가 글로벌 사업을 함께 할 실력 있는 한국 개발사를 찾는다 고 지난 12일 밝혔다. Aeria Games(대표 Lan Hoang, www.aeriagames.com)는 북미와 유럽에서 다양한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퍼블리셔로 현지 무료 온라인 게임(Free to Play) 시장의 선두주자다. 현재 사이야, 십이지천, 라스트 카오스 등 한국 온라인 게임 7종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8월부터는 독일에 지사를 설립하고 유럽 전역 서비스도 함께 진행 중이다.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마

케팅과 게임 운영 서비스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eria Games는 한국 시장 포화에 따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게임들이, 온라인 게임산업 초기 단계인 미국과 유럽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개발 중인 게임뿐만 아니라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은 게임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나 회사의 규모나 여건 등으로 제한이 있던 중소 개발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에리아 게임즈의 글로벌 사업에 관심 있는 개발사나 관계자는 이메일(licensing@aeriagames.com)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